마음의 발전이 없다면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 19면에서 계속

안하무인으로 뭐, 땅바닥이든지 진 땅이든지 비가 오든지, 그거 아랑곳할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볼 때 '저 스님한테 절을 해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해요. 왜냐? 내 위패가 없다면, 하하, 나라는 위패가 없다면 부처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앞잡이로서, 하하하,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니까 직통 부처님께서,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은 바로 그거를 아시고서 '얘, 정말 가긍하구나. 정말 지극하구나.' 뭐, 지극하게 빌고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그 도리를 진정코 믿고 알고 있구나.' 이래서 그저 나름대로 소신껏 그렇게 자기 마음먹고 한 대로 돼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그렇게 굴리지 않고도 진정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됩니까?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으면 첨단을 넘을 수 있는 부처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앉아서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그리고 다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안다 하더라도, 타심통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 즉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딱 내가 쥐고서 이 누진으로 벗어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보이고, 무슨 무슨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랬다고,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고게 아쉬워서 그냥 야단들을 하고 그게 도인 줄 알고 야단들을 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감사하게 놓기만 하면 돼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도 공부니까. 들리게 하는 것도 공부고 모두가 공부일 뿐이지,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도는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열적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냥 오만 신경을 다 써 가지곤 그냥 그렇게 찾는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앉아 가지곤 온통 야단을 하지 마시고요. 또 책을 그냥 몇 시간씩 보고 그냥 온통 정신을 다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요. 편리하게 내가 보고 싶을 때에 보고, 보기 싫을 때 놓고, 또 시간이 나서 앉고 싶을 때 앉고 앉기 싫으면 그냥 일어나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 그게 참선이에요.

행선이라든가 와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좌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대로. 이름이 각각 있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해야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사람은 앉았다 서고 섰다 앉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가 참선이다 이겁니다. 한 뿌리가 한 나무를, 헤아릴 수 없는 잎새가 달린 한 나무를 살리고 있듯이. 하여튼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제가 드릴 질문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신도들 대부분이 보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사 신도하고 보살 신도가 한 가정에서 서로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보살님은 열심히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사님이 오히려 그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이 한마음 공부로 인해서 가정에서 문제까지 생기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상 이 전깃줄이 서로 가설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선 부단히 가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부를 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보고 이걸 좀 큰스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다스리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큰스님 그걸요, 그러니깐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순리적으로, 어떠한 막는 개체가 있을 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에 큰 돌이 있어서 곧장 갈 수가 없다 할 땐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선원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다면 나오지 않고도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놓고 공부하시면서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이 밝아지게끔, 지혜가 생기게끔 하는 것도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것도 놓아 가면서 부드럽게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면서 그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처음에 볼 땐 자기 같이 다니지 않고, 그러니깐 마음에 안도감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어딘가가 앞서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연적으로 한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야지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좋은 공부를 당신은 안 하고 뭐, 어쩌니저쩌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똑같습니다.

질문자1(남) 그래서 제가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깐 열차 칸에서 서로 둘이 싸우고 또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 칸에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가니까 그때는 안 싸우는데….

큰스님 아니, 같이 나오시기는 하는데요?

질문자1(남) 오늘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 일어나 보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난 아주 안 나오시면서 그런다고. 아이, 나오시면서 그런 거는, 하하하. 지금 안 믿어 봤자야. 안 믿어 봤자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이 다 자신이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죠? '자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려 드리기 쉽게 말을 하자면 '자'는 지금 현재의 자기고, '신'은 자기의 그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심이, 그 불(佛)이 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딨습니까? 자기 신이 자기 '부(父)'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 때 살던 자기,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내가 있기에 세상도 알았고 상대성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자2(남) 큰스님 법문 중에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남이 선은 뭐고 악이 뭐냐고 물어 온다면 선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좋은 거고 또 내가 괴롭고 손해가 보더라도 상대가 좋은 거면 그걸 선이라고 보고, 악은 그와 반대로 상대와 내가 나쁘고 내가 좋고 이득이 되더라도 상대가 나쁘면 그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나보고 당신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뭘 놓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얘기하죠. "자(子)는 주(主)에게 모든 거를 놔라" 이런 겁니다. 주님은 바로 주처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주님이 있지 주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불가에서 불성이다 부처다 하는 것과 똑같애. 이게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할 때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출현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주'가 어딨는지 부처님이 어딨는지도 모를 게야.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도 알았고 상대성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본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과, 모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게끔 움죽거리니까 그냥 전체를 한데 묶어서 주인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이 우주의 근본 섭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이랬잖아.

그러니 바로 '자'는 '신'에게 놔라.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자는 신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믿고 종으로 알아라, 자기 몸뚱이는 종으로 알아라' 이런 거야. 왜냐? 지금 이치를 생각을 한대도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이 물 한 컵을 당신이 목이 마르다 할 때 마신다 해도 당신이 먹는 게 아니야. 당신이 달라는 게 아니야, 또. 당신 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그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고선 바로 물을 먹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지 제각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야. 같이 더불어 주(主)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자는 주에게 놔야지 않어! 맡겨 놔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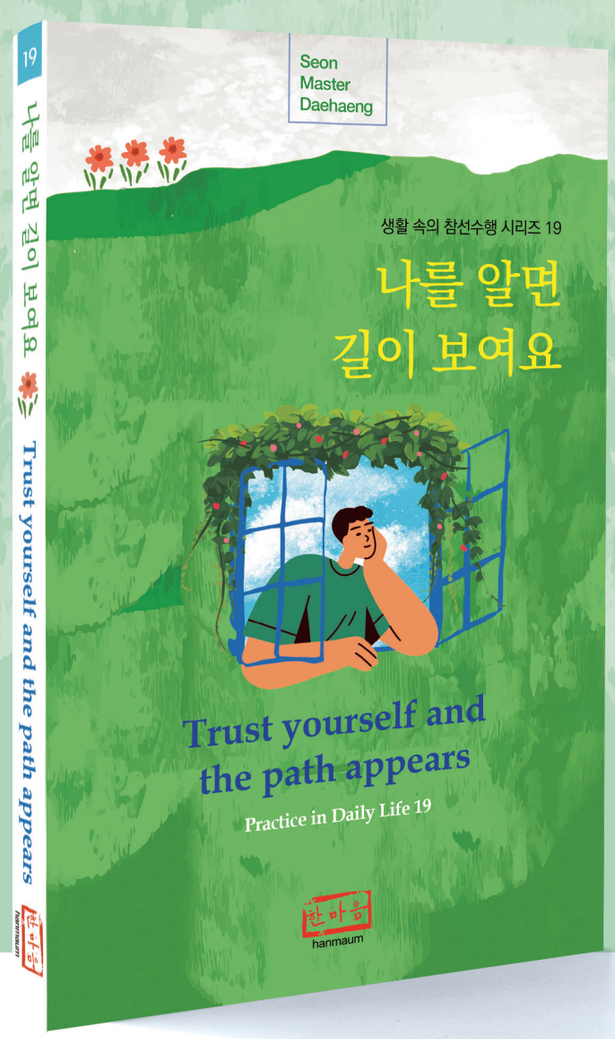
질문자2(남) 고맙습니다. 물론 큰스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누가 이렇게 잘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사량심으로 판별하는 그런 것이, 물론 선과 악이라는 얘기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별심이 지금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요, 그게 그대로….

큰스님 "다 놔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불을 켜려면 이쪽 줄과 이쪽 줄을 양면,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 양면을 다 한데 붙여 놓으면 (양 주먹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한 줄이 돼 버려야 불이 들어올 수 있지? 응.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러는 건, 한데 합치면 그냥 한 바다에 구정물과 새 물을 넣어도 그냥 한 바다가 돼 버리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더러운 물 따로 두드러지고 새 물 따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미국에 가서도 목사, 신부들과 모두 같이 세미나가 있고 토론을 했을 때도 만장일치로 손뼉을 치더군. 사실이니까, 그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